

세계은행(WB), '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'25년 대비 0.1%p 하락한 2.6%로 전망

- 관세효과의 본격화 및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
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

세계은행(World Bank)은 1.13(화) 23:30(미국 워싱턴 D.C 현지 시각 1.13(화) 09:30, 국제엠바고)에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*(Global Economic Prospects)을 발표했다.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.

* 세계은행은 매년 2회(1·6월) 「세계경제전망(GEP)」을 발표

- 세계은행은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분석기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므로, 전망치가 국제통화기금(IMF, '26년 3.1%)·경제협력개발기구(OECD, '26년 2.9%)와 상이
- IMF 및 OECD와 같이 구매력평가(PPP) 기준 성장률 전망시 '26년 3.0%로 양기구와 유사

세계은행은 '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'25년 대비 0.1%p 하락한 2.6%(시장환율 기준)로 전망하였다. '25년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일시적 무역량 증가효과*가 소멸되는 가운데, 관세효과의 본격화 및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하였다.

* the front-loading of trade : 관세 인상 등이 예상될 때, 기업들이 수출입을 앞당기는 현상

선진국의 '26년 경제 성장률은 '25년 대비 0.1%p 하락한 1.6%로 전망했다.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축을 성장세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. 미국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위축에도 불구하고, 연방정부 재가동 및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'26년 성장률을 '25년 대비 0.1%p 상승한 2.2%로 전망했다. 유로존의 경우 '26년 성장률은 '25년 대비 0.5%p 하락한 0.9%로 전망하였다. 미국 관세정책과 더불어 러-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증이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결과이다. 일본 역시 '26년 성장률을 '25년 대비 0.5%p 하락한 0.8%로 전망하였다. '25년의 일시적 무역 증가효과의 소멸과 지속적인 대외여건 악화를 원인으로 지적하였다.

* (선진국) '24년 1.7% → '25년 1.7% → '26년 1.6%

(미국) '24년 2.8% → '25년 2.1% → '26년 2.2%

(유로존) '24년 0.9% → '25년 1.4% → '26년 0.9%

(일본) '24년 -0.2% → '25년 1.3% → '26년 0.8%

신흥·개도국의 '26년 경제성장률은 '25년 대비 0.2%p 하락한 4.0%로 전망하였다. 중국 등 주요개도국의 성장 둔화, 무역장벽과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가 경제전망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. 중국은 그간의 확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, 소비심리와 고용시장 악화 및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'26년 성장률이 '25년 대비 0.5%p 하락한 4.4%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 이러한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전이될 것으로 분석하였다. 또한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인도의 수출이 급감하여 남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'26년 6.2%로 '25년 대비 0.9%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* (신흥·개도국) '24년 4.3% → '25년 4.2% → '26년 4.0%
 (중국) '24년 5.0% → '25년 4.9% → '26년 4.4%
 (남아시아) '24년 6.3% → '25년 7.1% → '26년 6.2%

세계은행은 '26년 세계경제 전망에 무역·금융·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.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의 재확대,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 약화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, 지정학적 갈등 및 기후 재해 발생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.

(경제 상방요인) AI 관련 기술을 세계경제 전반으로 확대 적용

→ 미국 생산성 증가율 연 0.7%p 상승, 글로벌 생산성 5년간 누적 2.7% 상승

(경제 하방요인) 위험자산 선호성향의 위축에 따라 S&P500 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이 '19년말 수준으로 회귀(주가 약 20% 하락)할 경우

→ '26년 세계경제성장률 0.3%p 하락, 선진국 경제 성장률 0.4%p 하락 전망

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국제사회와 개도국을 대상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. 국제사회에는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. 한편,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 규칙을 도입하는 등 취약한 재정 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. 또한, 개발도상국은 급증하는 생산가능인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여 국가 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.

※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세계은행 보고서를 일부 요약·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계은행 홈페이지(www.worldbank.org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현 (044-215-8710)
		담당자	사무관	장우진 (wj151@korea.kr)

참고

2026년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 전망치

(단위 : %, %p)

	2023	2024	2025 ^e	2026 ^f	2027 ^f	'25.6월 전망 대비 조정폭		
						2025 ^e	2026 ^f	2027 ^f

■ 경제성장률 (시장환율 기준)

(세 계)	2.8	2.8	2.7	2.6	2.7	0.4	0.2	0.1
○ 선진국	1.6	1.7	1.7	1.6	1.6	0.5	0.2	0.0
- 미국	2.9	2.8	2.1	2.2	1.9	0.7	0.6	0.0
- 유로지역	0.5	0.9	1.4	0.9	1.2	0.7	0.1	0.2
- 일본	0.7	△0.2	1.3	0.8	0.8	0.6	0.0	0.0
○ 신흥시장·개도국	4.4	4.3	4.2	4.0	4.1	0.3	0.2	0.2
(동아시아·태평양)	5.2	5.0	4.8	4.4	4.3	0.3	0.4	0.3
- 중국	5.4	5.0	4.9	4.4	4.2	0.4	0.4	0.3
(동유럽·중앙아시아)	3.6	3.6	2.4	2.4	2.7	0.0	△0.1	0.0
- 러시아	4.1	4.3	0.9	0.8	1.0	△0.5	△0.4	△0.2
(중남미)	2.4	2.4	2.2	2.3	2.6	△0.1	△0.1	0.0
- 브라질	3.2	3.4	2.3	2.0	2.3	△0.1	△0.2	0.0
(중동·북아프리카)	2.1	2.6	3.1	3.6	3.9	0.4	△0.1	△0.1
- 사우디	0.5	2.7	3.8	4.3	4.4	1.0	△0.2	△0.2
(남아시아)	8.0	6.3	7.1	6.2	6.5	1.0	△0.2	0.0
- 인도	9.2	6.5	7.2	6.5	6.6	0.9	0.0	△0.1
(사하라이남 아프리카)	3.0	3.7	4.0	4.3	4.5	0.3	0.2	0.2
- 남아공	0.7	0.6	1.3	1.4	1.5	0.6	0.3	0.2
■ 국제무역량 (전년 대비)	0.6	3.4	3.4	2.2	2.7	1.6	△0.2	0.0
■ 국제유가 (배럴당 \$)	82.6	80.7	69.0	60.0	65.0	3.0	△1.0	0.0